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10월 22일 (넷째 주일)

\*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동진 형제

\*찬송 왕 되신 주(24장) 다 함께

\*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

\*교독문 58번 다 함께

\*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(273장) 다 함께

기도 현윤경 집사

찬송 오 신실 하신 주(393장) 현윤경, 안은영, 유 정 자매

말씀 고명환 목사

-예수 그리스도: 6. 길과 진리와 생명(요한복음 14장 6절)

\*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(92장) 다 함께

교회소식 담당자

기도 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 금주 읽을 성경: 시편 10-16편, 사도행전

- 기도해 주세요-
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4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, 수요일 오후 7시, 월-금 오전 5시20분, 토요일 오전 6시

순례자의 목상

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.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곁을 지나갈 때는 그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여 “선생님! 좀 보세요!”라고 할 정도였습니다. 사십육 년 걸려 지은 성전인데 그 당시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. 학개서 성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려워져 갔다가 멈추어선 모습이 아닙니다.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를만큼 헤롯왕이 넉넉하게 가진 것으로 지어가기에 그것은 사십육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어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주님은 그 헤롯을 ‘여우’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성전을 지어줌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교활한 자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 장에서 “헨어버리라. 다 헨어버리라. 내가 삼일 만에 일으키리라.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여러분! 이곳에 주님께서서는 그런 성전이 아닌, 진정 부활하신 주님!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성전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.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! 헤롯 성전. 그것은 아닙니다!

역사적으로 나름대로 베드로 성당이나 저 유럽에 있는 큰 성전처럼,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만드는 성전을 그 무엇인양 종교성으로 만들어 갑니다.

그러나 여러분! 우리 예수님 빈들에 계시지만, 그곳은 사람 사는 곳도 못 되고 그 무엇도 없지만,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해 주었을까요?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만 새롭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. 때론 이런저런 절고로 병들어 쓰러져 가는 그들까지 새롭게 세워주시었습니다. 주님은 피곤하여 먹을 것 없고, 주린 배로 힘들어하는 그들까지도 먹여서 보내주시었습니다. 빈들에 아무 가진 것 없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, 주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마음도 맑아지고, 어느덧 예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처럼 마음에 느껴지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일까요!

